한국심리학회지 : 임 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4. Vol. 23, No. 1, 169-187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로샤 반응 특성*

심 은 지* 민 성 길* 이 창 호** 김 주 영* 송 원 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일본 도호대학교 오오모리 병원 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로샤 반응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지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들 가운데, 접촉이 가능하고, 검사에 동의한 26명과 지역 표집에서 동일한 성별, 연령, 학력 수준의 24명을 대상으로 로샤검사를 실시했다. 각각의 변인들은 Exner 종합체계(1993)에 따라,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control and stress tolerance),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자기지각(self-perception), 대인지각(interpersonal-perception)의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했고, Armstrong과 Loewenstein(1990)이 발전시킨 외상관련 내용지표(TC/R)을 독립적인 하나의 군집으로 추가하여,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 로샤 반응 특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 있어, (1) 비효율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방식(inefficient problem-solving and coping), (2) 부정확한 지각(perceptual inaccuracy), (3)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affect dysregulation), (4)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관련 내용들(intrusive traumatic imagery)의 크게 4가지 정도로 로샤 반응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었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방식에 있어서, low Lambda, high D, AdjD, high Zf, W, DQ+%를 보여,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필요이상의 자원을 소모하는 경향성이 드러났다. low X+%, F+%, high X-%, S-%, high WSum6와 DR반응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지각과 사고의 부정확성이 시사되며, 정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CF반응과 공격반응, 공백반응의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어, 충동적인 감정 표출양상과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가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Armstrong과 Lowenstein(1990)이 발전시킨 외상관련 내용지표(TC/R)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어, 과거 성폭행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정신적 후유증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일본군 위안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로샤, 외상관련 내용지표, 섬적인 학대

---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신 한국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의 지도위원 윤정옥 선생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변상철 연구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최봉태 대표님과 곽동협 직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 원 영 / 연세의료원 정신과학교실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313-0891 / E-mail : empathy@yumc.yonsei.ac.kr

서 론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군인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위안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한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적은 수의 위안소를 설치해 이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1937년 남경대학살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으로 위안소를 확대 설치했다. 2백만명이 넘는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많은 위안부들 중에서 일본인 매춘부는 소수에 불과했고, 일부는 중국인, 필리핀인, 네덜란드인 등 일본군 주둔지의 현지인이었고, 그 나머지 80-90%는 강제 동원된 약 20만명의 조선인이었다고 한다(한일문제연구원, 1995).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관계 자료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민간업자들이 여자들을 사온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여자들을 동원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

2003년 현재 국내에서, 지지단체에 등록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약 129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여전히 이들에 대한 법적인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2003년 1월 14일,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사건에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분노가 증폭되곤 한다. 위안소를 창설한 책임자를 받들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참배하는 모습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분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 생존자 중에서 인권을 유린한 고문 집행자가 무죄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 사람이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Lagos, 1996). 또한, 고문과 고문 생존자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결정은 정신치료의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한일조약 체결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아직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Basoglu, 2001).

일본군 위안부의 특수성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타격을 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등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DSM-IV의 PTSD 진단기준은 전쟁이나 강간 등의 외상 사건을 기본적으로 한 번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단지 단순 PTSD(simple PTS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강간, 감금, 신체적인 학대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DSM-IV의 진단규준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erman은 아동학대, 감금, 고문 등 장기간 반복 또는 지속되어진 반복성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복합 PTSD(complex PTSD)를 일으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Herman, 1992). Herman은 특히 소아, 청소년기, 즉, 인격형성 이전 혹은 형성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했을 경우, 전형적인 PTSD 증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방어기제, 행동양식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PTSD에서 보이는 회피증상이나 마비반응이 만성화되어 일반적인 반응성이 저하되며, 사회적 자극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으로 위축되는 특징을 보인다. 외상의 재경험 증상도 인지정서적 수준에서 행동 수준의 반응으로 바뀌게 되며, 특히 대인관계에서 외상의 재경험이 나타난다. 또 과각성증상 가운데 자율신경수준의 과민성과 자극성은 감정조절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분노나 충동성조절 장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DSM-IV에는 복합 PTSD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PTSD 관련특징 및 장애라는 항목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항목에 기술된 대인관계 장애, 감정조절장애, 자기 파괴성 및 충동적 행동, 해리증상, 신체적 호소 등은 모두 복합 PTSD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APA,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발적인 범죄,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1920년대생의 여성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이었던 1930-1940년대에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은 Herman이 주장한 복합 PTSD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해방 후 57년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기 성적 학대의 경험이 초래한 장기적 후유증(long-term sequela)에 관한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생애과정에서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나 공황장애(panic disorder), 공포증(phobia), 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 약물남용(drug abus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주요우울장애나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성적학대의 경험이 없거나 정도가 약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Walker, 1992). 또한 위안부 생존자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게 만성적인 학대와 고문 등을 경험한 유태인 대학살 생존자의 경우에도 대학살 이후 40년이 지난 후에도 정서적 고통(emotional distress)과 삶에 대한 만족감, 정신, 신체적 증상의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 지배하에 있지 않았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Carmil, 1986).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PTSD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전히 미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학, 여성학, 법학, 역사학 영역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려던 시도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위안부 생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과 관련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유사한 다른 PTSD 집단 연구 결과

외국에서는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戰) 이후 PTSD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PTSD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PTSD의 진단과 측정에 관한 심리측정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1977년에 처음으로 참전병들의 MMPI에서 일반적으로 8-2 프로파일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었다(Merbaum, 1977). 또한 PTSD를 가진 참전병들의 MMPI 프로파일에 관한 연구, 다른 집단과 PTSD를 변별해주는데 MMPI를 사용한 연구들(Fairbank, Keane, & Malloy, 1983; Keane, Malloy, & Fairbank, 1984; Foy, Siprelle, Ruger, & Carroll, 1984), MMPI의 PTSD 척도에 관한 연구(Fairbank, 1984) 등 주로 MMPI가 PTSD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로샤 검사를 사용한 PTSD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단일 사례 연구에서 Sally와 Teiling(1984)은 해리된 분노 발작(dissociated rage attack)으로 고통받는 베트남 참전병의 로샤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PTSD를 가진 참전병들의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증상 양상을 설명하고 검사하는데 로샤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 후, van der Kolk와 Ducey(1984)는 PTSD를 보이는 베트남전 참전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가지 범주의 반응유형 즉, '외향성(extratensive)'와 '위축성(coarcted)'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외향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색채의 광범위하고 비구조화된 사용, 높은 빈도의 색채-형태반응(CF반응), 인간운동반응이 사실상 없음, 피와 해부학적인 구조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 베트남 전에서의 외상경험이 검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로 언급됨, 높은 빈도의 무생물 운동반응, 잘 통합된 전체반응이 없음 등의 특징을 보이고, 위축성 유형은 반응수가 매우 적고, 색채반응이 거의 없으며, 인간운동반응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비환자 집단 혹은 타환자 집단과는 다른 로샤 반응들을 보인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Leifer, Shapiro와 Martone 및 Kassem(1991)은 성폭행 경험이 있는 흑인 소녀들 집단과 성폭행의 경험이 없는 소녀들 집단의 로샤 반응을 비교한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자아강도(ego functioning), 적응적인 대처능력과 스트레스(adaptive coping and stress), 정서작용(affective functioning), 대인관계(interpersonal engagement), 성적인 관심과 신체에 대한 관심(sexual and bodily concerns)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로샤 변인들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폭행 경험이 있는 소녀들에게서 더욱 와해된 사고, 적응능력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 수준, 대인관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묘사, 성적인 주제에 대한 보다 과도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성폭행의 경험이 사후 정확한 판단에서의 오류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빈약한 대인관계와 성적인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같은 부적응적인 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Holaday(2000)는 PTSD로 진단받은 아동, 청소년 집단과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cient Disorder)로 진단받은 아동, 청소년 집단과 정상집단에서의 로샤 반응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PTSD 집단과 정상 집단간 정신분열증지표(SCZI), 우울증지표(DEPI), 대처방식지표(CDI), 자아중심성지표(EgoC), 정서반응성(Afr), 재질반응(T), 경험실제(EA), 평범반응(P), 색채반응가중치(WSumC), 특수점수(RawSumSS), 특수점수가중치(WSumSS)의 12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분열증지표(SCZI), 관습적 형태질(X+%), 특수점수(RawSumSS), 특수점수가중치(WSumSS)의 4개의 변인에서는 PTSD와 적대적 반항장애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TSD와 적대적 반항장애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모두 사고와 지각과 관련된 지표들로써, PTSD 집단에서 사고의 와해와 지각의 왜곡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사고와 지각상에서의 결함이 정신분열증에서뿐만 아니라, PTSD 집단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외상 경험이 정확한 사고와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rmstrong과 Loewenstein(1990)은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로 진단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관련 내용지표(Trauma Content Index; TC/R)를 발전시켰다. 외상관련 내용지표는 피반응(Bl), 해부반응(An), 성반응(Sx), 병적인 내용반응(Morbid), 공격운동반응(AG)에 대한 전체 반응수(R)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해리장애 환자들의 경우 이 지표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성폭행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 지표가 과거의 성폭행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외상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Nordstrom & Carlsson, 1997, Kamphuis et al., 2000).

국내의 PTSD와 관련된 심리측정적 연구도 주로 MMPI를 기초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계윤정, 최정윤, 1993; 은헌정, 이선미, 장광철, 1994; 박영숙, 1995). 그러나, 최근 이혜선과 김재환(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PTSD 집단을 대상으로 로샤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일단 PTSD 집단의 반응 특성을 살펴보고, PTSD집단과 정신분열증집단 간의 반응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분석결과, PTSD 집단은 X+%가 56%, F+%가 47%로 정신분열증 집단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지각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Lambda, W보다 적은 D반응, 낮은 Zd 값을 보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es와 Adj es가 높게 나타났고, 우울증 지표와 자살지표에 있어서도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분열증 집단과의 t검증 결과, W, Lambda, es, Adj es, FM, C', X+%, X-%, AG, Sum6SS 등의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PTSD 집단이 적절한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Hartman 등(1990)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PTSD가 이론적으로 논의된 수준보다 더 심각하고 전반적인 장애라는 사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로샤 검사의 유용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PTSD와 관련해서는 MMPI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MMPI가 PTSD의 임상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자기보고식검사로 고의적인 반응조작이나 개인의 특정한 반응양식(response style)의 영향을 받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투사적인 검사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의 통제가 어렵고, 개인의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표상, 세상을 지각하는 양상 및 무의식적 수준의 감정이나 갈등, 동기 및 경험을 조직화하는 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중술,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2000).

특히 PTSD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정상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성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첫째,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들의 연령이 70-80대로 고령이라는 점과 대부분이 무학 혹은 소학교중퇴정도의 낮은 학력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스로 읽고, 표기해야하는 자기보고식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둘째, 과거 외상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일부 생존자들은 이와 관련된 기억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회피하는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 양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환상(compensation fantasy)이 있어서(Herman, 1992), 자신의 증상을 나쁘게 과장할 가능성(faking bad)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실제적인 이유와 일본 정부와 관련된 미묘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고령과 낮은 학력에도 실시가 용이하고, 의식적인 수준에서 반응을 조작할 가능성이 최소한으로 배제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위안부 생존자들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로샤 검사는 피검자들이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잉크 블롯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비교적 검사실시가 용이한 편이며,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반응 조작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심리측정도구로써 위안부 생존자

들의 정서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가지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로샤 반응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현재 정서상태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또한 동시대의 경험을 한 대조집단으로 연령, 학력이 유사하며, 현재 서울 S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할머니들과의 로샤 반응특성을 비교하여 보다 명확한 반응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가설

위안부 생존자들의 많은 수가 여전히 PTSD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러 PTSD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1)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방식(Leifer, Shapiro, Martone, & Kassem, 1991), (2) 부정확한 지각(Leifer et al., 1991, Holaday, 2000), (3)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van der Kolk & Ducey, 1984), (4) 긴장과 무기력감의 경험(van der Kolk & Ducey, 1984), (5) 회피적인 대인관계(van der Kolk & Ducey, 1984; Leifer et al., 1991), (6)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관련 내용들(Leifer et al., 1991; Armstrong & Loewenstein, 1990)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존자들이 여타의 PTSD 집단에서 보였던 특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존자들의 현재 인지 및 정서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 가운데 현재 지지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사에 동의한 2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경기도 퇴촌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6명, 대구에 거주하는 6명, 그 밖의 경상도지역에 거주하는 7명,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7명이었고, 병원에 직접 내원한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자가 직접 거주지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대조군은 서울 S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동일한 성별, 동등 연령, 학력 수준의 24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에 검사를 실시했다.

위안부 생존자 집단과 지역표본 집단의 인구학적인 특징 학력, K-MMSE 결과의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위안부 생존자 집단의 나이는 평균 79.35세, 지역표본 집단의 나이는 평균 77.04세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약 3년 정도의 교육연한을 보여 차이가 없었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이하 K-MMSE) 점수에 있어서는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는 22.88점, 지역표본에서는 21.29점을 나

표 1. 집단간 나이, 학력, K-MMSE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나이	79.35(3.95)	77.04(5.78)
학력	3.12(3.82)	2.75(3.74)
K-MMSE	22.88(3.04)	21.29(4.52)

타냈으며,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없었다.

측정 도구

로샤검사

Rorschach 검사는 Exner 종합체계(1993)에 따라 실시, 채점되었다. 평가자는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수련생들이 실시했고, 임상심리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lstein, Folstein & McHugh(1975)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강연욱과 나덕렬 및 한승혜(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시간 및 공간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 및 계산 능력, 회상, 언어능력과 시공간 구성능력과 같은 영역을 측정하며, 0에서 30점의 점수 범위를 갖게 된다. 기능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

연구대상에서 언급한 26명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해 정신과적인 진단과 그 후의 경과와 관련된 설문들을 포함한 보다 큰 규모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그 중의 일부분으로, Rorschach 검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집단과 서울 S 복지관의 노인 집단의 2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t-test를 실시하였다. 로샤검사의 변인들은 Exner 종합체계(1993)에 따라,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Control and Stress tolerance),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자기지각(Self-perception), 대인지각(Interpersonal-Perception)의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했고, Armstrong과 Loewenstein(1990)이 발전시킨 외상관련 내용지표(TC/R)을 독립적인 하나의 군집으로 추가하여, 총 6개의 군집으로 변인들을 구분하였다. 부가적으로, 위안부 생존자 집단의 반응에서 보이는 질적인 특징들을 일부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결 과

로샤반응에 대한 집단간 차이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Control and Stress Tolerance)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집단간 전체 반응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Lambda 값에 있어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은 평균 1.39, 지역표본에서는 평균 3.27로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심리적 내적 자원을 의미하는 EA값에 있어서는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A의 구성요소인 인간운동반응(M)과 FC, CF, pureC중에서 다른 변인들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더 많은 수의 CF반응이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나타났다.

정서적인 고통감의 정도를 알려주는 es에 있어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은 평균 5.50, 지역표본에서는 평균 2.50로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무채색반

표 2. 집단간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Control and Stress Tolerance)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R	13.77(2.58)	12.29(2.84)	1.92
Lamda	1.39(1.20)	3.27(3.40)	-2.57*
EA	2.58(2.52)	1.08(1.15)	2.73*
es	5.50(2.83)	2.50(1.89)	4.36***
D score	-.73(1.12)	-.13(.45)	-2.55*
AdjD	-.69(1.09)	-.08(.41)	-2.66*
FM	4.31(2.54)	2.08(1.72)	3.59**
m	.54(.99)	.38(.92)	.60
FM+m	4.85(2.63)	2.46(1.84)	3.68**
C'	.15(.37)	.00(.00)	2.13*
T	.42(.70)	.04(.20)	2.64*
V	.04(.20)	.00(.00)	.96
Y	.04(.20)	.00(.00)	.96
SumShading	.65(.80)	.04(.20)	3.78**

* $p<.05$, ** $p<.01$, *** $p<.001$

응(C'), 재질반응(T)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현재의 적응력과 대처능력을 가늠케 해주는 D와 AdjD에 있어서는 위안부 생존자 집단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그밖에 동물운동반응(FM)에 있어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은 평균 4.31, 지역표본은 평균 2.08로 99%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인간운동반응과 무생물운동반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Cognition)

인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와 관련해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인지적으로 하나의 자극을 통합해서 바라보려는 시도(Zf, W, DQ+)가 유의미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Mediation) 영역과 관련해서, 형태질을 살펴보면,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양호한 질의 반응과 관련된 X+%와 F+%가 지역표집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왜곡된 형태질의 반응을 의미하는 X-%와 정신분열증 지표의 값은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특히, 내재된 공격성과 적개심이 자극되는 특정한 순간에 지각의 왜곡(S-%)도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사고(Ideation) 영역에서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

표 3. 집단간 인지(Cognition)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Zf	9.23(3.04)	5.21(1.50)	6.00***
Zd	-.58(4.59)	-1.69(2.63)	1.05
W	6.54(2.94)	4.58(1.59)	2.95**
D	5.85(2.34)	6.58(3.09)	-.95
Dd	1.38(1.53)	1.13(.95)	.72
M	1.85(2.15)	.92(1.14)	1.88
DQ+	4.35(2.50)	1.58(1.47)	4.80***
DQv	.12(.43)	.29(.69)	-1.09
P	2.44(1.14)	2.33(1.31)	.25
X+%	.42(.15)	.54(.18)	-2.51*
F+%	.41(.23)	.54(.18)	-2.08*
X-%	.40(.15)	.23(.14)	3.90***
S-%	.12(.19)	.01(.05)	2.93**
Xu%	.17(.13)	.20(.13)	-1.02
SCZI	3.08(1.26)	1.71(1.16)	3.98***
active	4.81(3.68)	1.29(1.63)	4.42***
passive	2.58(2.34)	2.13(1.75)	.76
Ma	1.27(1.99)	.29(.62)	2.38*
Mp	1.00(1.39)	.63(.82)	1.15
Intellectualization Inx.	.54(1.68)	.13(.34)	1.22
DR	.30(.47)	.00(.00)	3.30**
WSum6	2.92(4.07)	.25(.90)	3.26**
M-	.69(1.46)	.29(.55)	1.30
Mnone	.12(.59)	.00(.00)	.95

* $p<.05$, ** $p<.01$, *** $p<.001$

과는 달리 오히려 능동 운동반응(active, Ma)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공격 반응에 있어서도,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수점수에 있어서는, WSum6값이 위안부 생존자 집단의 경우 평균 2.92, 지역표집의 경우 평균 0.25로 99% 신뢰구

표 4. 집단간 정서(Affect)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FC	.22(.59)	.08(.28)	1.14
CF	.62(.80)	.13(.45)	2.69*
pure C	.00(.00♣)	.00(.00♣)	
Afr.	.38(.16)	.46(.12)	-1.76
S	1.08(1.65)	.21(.41)	2.50*
Blends	.92(1.23)	.08(.41)	3.28
CP	.00(.00♣)	.00(.00♣)	
DEPI	3.12(.77)	2.83(.48)	1.54

* $p<.05$, ** $p<.01$, *** $p<.001$

♣ 두 집단에서의 표준편차가 모두 0으로 t값이 산출되지 않음.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DR값을 보인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정서(Affect)

정서 관련 변인들의 집단간의 차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pure C반응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FC반응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CF반응과 공백반응이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5. 집단간 자기지각(Self-Perception)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Ego-Centricity Inx.	.45(.17)	.42(.18)	.65
reflection	.00(.00♣)	.00(.00♣)	
FD	.00(.00♣)	.00(.00♣)	
An	.92(2.08)	.13(.45)	.06
Xy	.03(.20)	.00(.00)	.96
MOR	1.27(2.07)	.25(.74)	2.35*

* $p<.05$, ** $p<.01$, *** $p<.001$

♣ 두 집단에서의 표준편차가 모두 0으로 t값이 산출되지 않음.

자기지각(Self Perception)

자기지각 관련 변인들의 집단간 차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반사반응과 형태-차원(FD)반응은 두 집단 모두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밖에 해부반응과 X-ray반응, 자아중심성지표(Ego-Centricity Index)에서도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병적인(morbid) 내용반응은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는 평균 1.27, 지역표집에서는 평균 .25로 95%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대인지각(Interpersonal Perception)

대인지각 관련 변인들의 집단간 차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유일하게 공격반응에 있어서 99%신뢰구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산출되었다. 그 밖의 협동반응(COP), 음식반응(Fd), 인간반응과 동물반응, 소외지표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상관련 내용지표(Trauma Content Index; TC/R)

외상관련 내용지표에 속하는 총 5개의 변인들에 있어서의 집단간의 차이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그 중 해부반응과 피반응을 제외한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반응과 병적인 내용반응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공격반응의 경우 99% 신뢰구간에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양의 반응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상관련 내용지표는 99%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집단간 대인지각(Interpersonal-Perception)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COP	.42(.58)	.21(.41)	1.51
AG	1.73(2.51)	.04(.20)	3.42**
Fd	.12(.33)	.21(.51)	-.77
Isolation Inx.	.16(.1700)	.12(.13)	.97
H	2.19(2.65)	1.17(1.49)	1.66
(H)	.07(.27)	.21(.41)	-1.31
Hd	.27(.53)	.42(.58)	-.93
(Hd)	.04(.20)	.00(.00)	.96
A	8.00(3.53)	8.42(3.05)	-.44
(A)	.08(.39)	.00(.00)	.96
Ad	.62(.70)	.83(1.37)	-.71
(Ad)	.00(.00)	.08(.28)	-1.44

* $p<.05$, ** $p<.01$, *** $p<.001$

표 7. 집단간 외상관련 내용지표(Trauma Content Index; TC/R) 점수의 비교

	위안부 생존자 집단 (n=26) 평균(표준편차)	지역 표본 (n=24) 평균(표준편차)	t
An	.92(2.08)	.13(.45)	1.91
Bl	.19(.69)	.00(.00)	1.41
Sx	1.27(2.31)	.04(.20)	2.70*
AG	1.73(2.51)	.04(.20)	3.42**
MOR	1.27(2.07)	.25(.74)	2.35*
TC/R	.38(.45)	.04(.10)	3.66**

* $p<.05$, ** $p<.01$, *** $p<.001$

표 8. 질적인 특징

Sx	Ⅲ. "여자 자궁을 들이 막 잡아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짐승같은 남자들", Ⅳ. "여자 아랫도리인데, 다리는 남자같고, 배가 축하니 쳐지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아니 몰라...", Ⅳ. "일본놈들이 행패하는 장면, 우리한테 달겨드는 느낌, 좀 거절하면, 맞아서 코피나고.. 밑에는 자궁, 위에는 일본 놈, 성행위를 하는 행패다", Ⅶ. "오줌 누는 것 같은데, 밑에 엉치 있는데, 그저 꾹꾹하니,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Ⅶ. "여자 자궁인데, 좀 희귀해요, 어떻게 보면 남자 같이도 보이고..", Ⅷ. "자궁에서 피도 나고, 자기네들을 기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일본 놈이 장한 듯이 느끼는 것" Ⅹ. "자궁에 무슨 암이나 그런 게 아닐까, 여자들은 자궁 안에 혹 같은 것도 있다지..",
AG	Ⅰ. "일본 놈들이 처녀들을 막 끌고 가는 것, 일본 놈 2명이 한국 여자 6명 끌고 가는 거" Ⅰ. "남자가 여자들 팔 잡아당기는 것, 옛날 말 타고 가는 군복 같은 그런 거 입고, 자기네들 욕구 채우기 위해 끌고 갈라고" Ⅵ.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접어드는 거, 덮쳐 드는 거,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접치면서, 무섭게 구는 거야, 다리 잔뜩 벌리고, 팔 이래해 하지고, 머리는 성 나가지고.." Ⅹ. "암놈, 수놈이 서로 피 빨아먹는 거 아이야"
MOR	Ⅱ. "위에는 머리, 밑에는 자궁, 우리 머리도 상처 났잖아요, 왜 코피가 나겠어요, 밑에는 약 먹고, 씻고, 바르고 했거든요" Ⅵ. "돼지 다루듯이, 사람을 짐승같이 나무에 묶어 놓고, 고문하는 것 같다, 눈은 가렸고, 일본 놈은 꼭 목가지를 치거든, 자기도 모르게 노란 오줌을 질질 싸는 것 같아, 불알이 다 올라붙고, 한국 사람 왕이나 이름있는 사람보고 그러는 것 같아, 배가 나오고, 숨 못 쉬어서.." Ⅵ. "남자 둘이 자궁에다가 총 넣는 것, 나 이런거 너무 많이 봤어" Ⅶ. "쇠줄로 한국사람 목을 베고, 기도 있는데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Ⅸ. "피 토하고 있고, 사람 입에다가 좇 먹어라하는 것, 지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좋다고 춤추는 건데, 지칠데로 지쳐서 나자빠진 형상이야", Ⅹ. "여자 자궁이고,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굉장히 상처입은 다리같아요"

질적인 특징

외상관련 내용지표에서 언급했듯이,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이 유의미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이 중 특히 극적인 내용이 나타난 반응들을 질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이들 반응을 살펴보면,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을 굳이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 3가지 내용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 외상 관련 경험내용이 관찰된다. 또한 그 순간 지각의 정확성이 흐려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로샤반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여전히 PTSD의 증상과 같은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역 표본 노인 집단의 로샤반응 특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일단 로샤검사의 변인들을 Exner 종합체계(1993)에 따라, 통제력과 스트레스 내인력(control and stress tolerance),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자기지각(self-perception), 대인지각(interpersonal-perception)의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했고, Armstrong과 Loewenstein(1990)이 발전시킨 외상관련 내용지표(TC/R)을 독립적인 하나의 군집으로 추가하여, 총 6개의 군집으로 변인들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집단간 반응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 있어, 앞에 연구가설에서 예측했던 6가지 영역중 긴장, 무기력감의 경험과 회피적인 대인관계와 관련된 로샤 관련 변인들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기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무생물운동(m)반응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제 인간내용(pure H)반응의 수나, 소외지표에서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위안부 생존자들의 특수한 성향과 관련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일단 반복적인 외상과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까지 생존해 있는 점, 또 연구에 동의한 생존자들이 지지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로 파악된다. 이러한 대상 집단의 특수한 성향으로 인해, 선행된 PTSD 연구 결과에서 보였던 무기력감이나 회피적인 대인관계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반면에,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1) 비효율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방식(inefficient problem-solving and coping), (2) 부정확한 지각(perceptual inaccuracy), (3)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affect dysregulation), (4)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관련 내용들(intrusive traumatic imagery)의 4가지 영역에서 특징적인 로샤 반응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문제해결과정과 대처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이 시사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Lambda값을 나타낸다. 형태반응(F)의 빈도가 평균보다 낮을 때, Lambda값이 낮아지게 되는데(Exner,1993), 이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갈등, 정서 등으로 인해 좀 더 간단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극장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적인 자극에 지나치게 휘둘리게 되어 외부자극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적절하게 통제된 상

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파악되며, 이는 PTSD의 진단준거 중에 하나인 과각성(arousal) 증상과 관련된 반응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심리적 내적 자원을 의미하는 EA값에 있어서(Weiner, 1998),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충동적인 감정 표출 양상을 의미하는 CF반응의 상승에 의한 결과로 위안부 생존자들이 보다 풍부한 내적 자원을 지녔다기보다는 감정에 쉽게 압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인다(Weiner, 1998). 또한, D와 AdjD값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고통감의 정도를 알려주는 es값에서 위안부 생존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es값의 상승은 동물운동반응(FM)과 음영반응, 재질반응 상승에 따른 것으로 위안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관련된 갈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가늠케 해주는 결과로 파악된다(Exner, 1993). 그러나, 이렇게 정서적인 고통감이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부 생존자들이 지역표집 노인들에 비해, 높은 D와 AdjD값을 보인다. PTSD 관련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D와 AdjD값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Hartman et al., 1990; Levin, 1993; Sloan et al., 1996; Swanson et al., 1990), 이는 예상외의 결과이다. 표면적으로 높은 D와 AdjD값은 위안부 생존자들이 보다 적응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고령이라는 점과 인간운동반응의 증가가 아닌 CF반응의 증가로 인한 D와 AdjD값의 상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어지는 외부의 자극에 필요이상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는 다른 노인들이 경험하지 않는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 참여한다든지 정치적, 외교적인 사안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 등의 위안부 생존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도 관련되어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일치하게, Zf, W, DQ+%값이 유의미하게 높아,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이 관찰된다(Weiner, 1998). 즉,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며,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자원에 비해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도 설명가능하겠다.

둘째, 위안부 생존자들의 반응에서 유의미하게 부정확한 지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지각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X+%, F+%가 낮아져 있는 반면에, 왜곡된 형태질의 반응을 의미하는 X-%는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와 적개심과 같은 정서가 자극되는 순간에 지각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양상(S-%)를 보이고 있으며, 이 순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시사된다. 이는 생존자들의 외상과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반응에 대한 연상과정에서의 우원성(circumstantiality)을 의미하는 DR반응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으며(Exner, 1993), WSum6값과 정신분열증지표(SCZI)값이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에서의 결함이 시사된다. 이는 Holaday(2000)와 이혜선과 김재환(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여타의 다른 PTSD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각과 사고의 왜곡이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셋째, 위안부 생존자들 집단에서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는 과정에서의 결함이 시사된다. 일단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CF반응이 유의미하게 많아, 정서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를 별다른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처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Weiner, 1998). 이렇게 충동적인 감정표현방식은 van der Kolk와 Ducey(1984) 연구의 '외향성' 범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적고, 전체반응 수가 적은 관계로, '외향성'과 '위축성'의 범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CF반응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외향성' 범주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에 참여한 생존자들이 고령임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점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배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van der Kolk와 Ducey(1984)가 제시하는 '외향성' 범주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관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공격반응과 내재된 분노감과 적개심을 의미하는 공백반응도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다(Exner, 1993). 따라서, 충동적인 감정 표출양상과 내재된 분노와 공격성이 함께 자극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폭발(emotional outburst)을 보일 가능성이 시사되며, 이는 법적 배상과 관련된 일본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수요시위나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실제적인 문제들과도 연관된 결과로 파악된다.

넷째,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관련 내용들이 위안부 생존자들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관찰되었다. 일단 Armstrong과 Loewenstein(1990)이 발전시킨 외상관련 내용지표(TC/R)의 피반응, 해부반응, 성반응, 병적인 내용반응, 공격운동반응의 총 5개의 변인들 중 피반응과 해부반응을 제외한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행의 경험이 있는 소녀들의 집단에서 성적인 주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Leifer 등(1991)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인데, 위안부 생존자들의 경우 반복적인 강간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성반응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를 질적으로 살펴보면, 성반응이 그저 단순하게 성기관(sexual organ)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언급이나 성기관의 질병 등을 연상하고 있으며, 위안부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외상과 관련된 재경험(reexperience)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또한 생존자 집단에서의 유의미하게 많은 공격반응이 관찰되는데, 이중 일부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상황이나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로 과거 외상에 대한 재경험 관련되어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의 반응들이 관찰된다. 공격운동반응과 더불어, 능동운동반응도 함께 증가되어 있는데, 위안부 생존자들이 문제상황에서 능동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공격운동반응의 증가로 인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내재된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불안정성과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PTSD 집단이 상당한 정도의 행동적인 수동성을 보이고, 이는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무기력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전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인데(Hartman, Clark, Morgan, Dunn, Finn, Perry, & Winsch, 1990; Levin, 1993; Sloan, 1996; Swanson, Blount, & Bruno, 1990), 이는 공격운동반응의 증가에 따른 능동운동반응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병적인 내용반응과 관련해서는, 주로 일본군으로부터의 강간과 고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특징적으로 발견되며, 외부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당하고, 상처입고, 취약하다고 여기는 부정적

인 의미의 자아상이 드러나고 있다. 즉, 과거 반복되는 학대(abuse)로 인해 자신의 신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내용들이 나타나며, 이는 한편으로는 분노와 공격성, 또 한편으로는 자책감(self-blame)과 같은 정서로 연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생각된다.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 3가지 내용반응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과거 외상관련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에서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순간 지각과 사고의 왜곡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성반응, 공격운동반응, 병적인 내용반응의 증가로 인해 외상관련 내용 지표가 지역 표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산출되고 있어, 이 지표가 과거의 성폭행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외상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제안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Nordstrom & Carlsson, 1997; Kamphuis, Kugeares, & Finn,2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안부 생존자 집단에서 여러 종류의 PTSD 집단을 대상으로 한 로샤반응 특성연구에서와 일치하는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특히, 외상관련 내용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검사에 참여한 생존자들 중 몇몇은 여전히 PTSD 진단준거에 준하는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의 하나는 연구에 참여한 위안부 생존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들 중에서 고령까지 생존하고 있는 비교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사에 동의한 생존자들의 특성-비교적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지지단체에 후원을 받고 있는-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연구에 참여한 생존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강점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러 로샤 반응들에서 부적응적인 면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관찰되고 점을 고려하여 유추하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지지단체와 접촉하고 있지 않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생존자들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심각한 수준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또한편으로는 지역 표집을 포함해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의 나이가 평균 75세 이상의 고령이고, 교육 연한이 약 3년 정도 수준이며, K-MMSE 점수의 평균이 약 23점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빈약한 로샤 프로토콜을 가지고 결과를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존자들의 고령과 저학력 등의 이유로 인해 MMPI와 같은 체계적인 자기보고식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차후에는 PTSD 집단에 대해, MMPI와 로샤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두 검사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PTSD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해 로샤 검사를 사용한 구체적인 반응 분석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 생존자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앞으로 또 다시 이와 같은 연구에 많은 생존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겠다. 또한 의식적인 수준에서 조작하기 어려운 투사적 검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후 법적인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연욱, 나덕렬, 한승혜 (1997).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MMSE의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5(2), 300-308

계윤정, 최정윤 (199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의 MMPI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30-40

김중술,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2000). 왜 진단적 심리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가 - Rorschach와 MMPI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393-407

박영숙 (199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과 기질성 장애군의 MMPI 비교. 이화의대지, 18(4), 517-523

은헌정, 이선미, 장광철 (199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특성. 신경정신의학회지, 33(2), 353-363

이혜선, 김재환 (2000).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Rorschach 반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93-30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한일문제 연구원 (1995).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아세아 문화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rmstrong, J. G., & Loewenstein, R. J. (1990).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multiple personality and dissociative disorders on psychological testing.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78, 448-454

Basoglu M. (2001). Impunity for perpetrators and posttraumatic stress responses. In Gerrity E, Keane TM, Tuma F(ed.).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orture*(pp52-53). Ku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Carlmi, D. (1986). Emotional distress and satisfaction in life among Holocaust survivors: A community study of survivors and controls, *Psychosomatic Medicine*, Feb; 16(1): 141-9

Exner, J. E.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ume 1, 3rd Edition. New York: John willy & sons

Fairbank, J. A., Keane, T. M., & Malloy, P. F. (1983). Some preliminary data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f Vietnam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912-919

Folstein, M. F., Folstein, S. E., & McHugh, P. R. (1975). Mini-Mental State-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 189-198

Foy, D. W., Siprelle, R. C., Ruger, D. B., & Carroll, E. M. (1984). Et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etnam veterans: Analysis of preliminary, military and combat exposure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9-87

Hartman, W. L., Clark, M. K., Morgan, V. K., Dunn, A. D., Finn, G. G., Perry, J., & Winsch, D. L. (1990). Rorschach structure of hospitalized sample of Vietnam veterans with PTS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149-159

Holaday, M. (2000). Rorschach protocol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diagnos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1), 143-157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Kamphuis, J. H., Kugeares, S. L., & Finn, S. F. (2000). Rorschach correlates of sexual abuse: trauma content and aggression index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2), 212-224

Keane, T. M., Malloy, P. F., & Fairbank, J. A. (1984). Empirical development of MMPI subscale for the assessment of combat-related posttraumatic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888-891

Lagos D., Kordon D. (1996). Psychological effects of political repression and impunity in Argentina. *Torture,* 6, 54-56

Leifer, M., Shapiro, J. P., Martone, W. M, & Kassem, L. (1991). Rorschach assessment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1), 14-28

Levin, P. (1993). Assess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the Rorschach projective technique. In Wilson, J. P., & Raphael, Y. B.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New York: Plenum Press, pp189-200

Merbaurne (1977). Som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oldiers exposed to extreme war stress: A follow up study of post-hospit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558-562

Nordstrom, K., & Carlsson, A. M. (1997, March). *Rorschach comparison of borderline patien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ssessment, San Diego, CA

Ornduff, Centeno, & Kelsey (1999). Rorschach assessment of Malevol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3(1), 100-109

Sally R. D., Teiling, P. A. (1984). Dissociated rage attacks in Vietnam veterans: A Rorschach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30-239

Sloan, P., Arsenault, L., Hilsenroth, M., Harvill, L., & Handler, L. (1996). Rorschach meas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ersian Gulf War vetera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4, 54-64

Swanson, G. S., Blount, J., & Bruno, R. (1990). Comprehensive system Rorschach data on Vietnam combat vetera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160-169

van der Kolk, B. A., & Ducey, C. P. (1984). The psychological processing of traumatic experience: Rorschach patterns in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 259-274

Walker E. A. (1992). Medical and psychiatric symptoms in women with childhood sexual abuse, *Psychosomatic Medicine,* Nov-Dec; 54(6): 658-64

Weiner I. B. (1998). *Prin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원고접수일 : 2003. 10. 16
게재결정일 : 2004. 1. 5

한국심리학회지 : 임 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4. Vol. 23, No. 1, 169-187

Rorschach Protocols fro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un-Ji Shim* Sung-Gil Min* Chang-Ho Lee** Joo-Young Kim* Won-Young Song**

*Dep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pt. of Psychiatry Oomori Hospital Toho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Rorschach response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bjects were 26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o agreed to test and 24 community samples who were same sex, age, education with comfort women. Rorschach protocols were administered, scored, analysed according to the Exner's comprehensive system(1993). Each Rorschach variables was divided into 5 clusters(Control and stress tolerance, Cognition, Affect, Self-perception, Interpersonal-perception) due to the Exner's comprehensive system(1993), and added to Trauma-Content Index(TC/R) which was developed by Armstrong and Loewenstein(1990). As a result, group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s characterized as (1) inefficient problem-solving and coping, (2) perceptual inaccuracy, (3) affect dysregulation, (4) intrusive traumatic imagery. First, low Lambda, high D, AdjD, high Zf, W, DQ+% were found in comfort women group. It tells us comfort women's tendency that they use excessive energy to solve problems instead of using simple and economical strategy. Second, low X+%, F+%, high X-%, S-%, high WSum6, elevation of DR response suggests perceptual inaccuracy and poor reality testing. Third, elevation of CF, AG, Space response suggests that comfort women have a problem with impulsive emotional expression and inner anger and aggression. Finally, comfort women displayed the elevated rate of TC/R, and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mfort women still have difficulties 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ast trauma and following psychological sequela.

Keywords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TSD, Rorschach, Trauma-content index, Sexual abuse